

시대분별_Timing XII.

'전환'의 시간을 잘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1. 비전의 특징

(1)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차별이 없으시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 즉,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의미없는 인생은 없다.

(2) 비전은 분명한 소명으로 임한다.

소명이 없는 비전은 비전이 아니다. 비전은 장차 분명하게 이루어질 그림을 말한다. 그래서 비전은 몽상이 아니다. 비전은 마음의 확신으로 주어진다. 그 상태가 바로 '소명'이다. 소명은 책임감을 말한다. 임무를 말한다.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3) 비전은 크기가 아니라 방향성이다.

큰 비전, 작은 비전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세상의 가치에 의해 평가되지 않는다. 세상은 큰 일, 작은 일, 경중의 일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그 자체로 중요하다. 비전은 '일'이 아니다. 비전은 '뜻'이다. '뜻'은 방향성을 말한다.

비전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방향성을 말한다. 비전은 한 번 이루고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다. '비전'은 삶이다. 삶의 행적이며 나아가갈 방향이다. 그래서 비전은 '일'이 아니다. 비전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며,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비전(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상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된 눈이 떠진 것을 말한다.

(4) 여정 안에서 비전을 이해해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비전은 이벤트가 아니라 방향성이라 했다. 그러므로 여정 안에서 비전을 보아야 한다. 이것은 비전이 임하는 '초기', 비전이 점검되는 '중기', 그리고 비전에 도달하는 '말기'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비전은 여정이다. 과정을 통해 완성된다. 과정이 없는 비전은 잘못된 비전이다.

(5) 초기에 비전이 임해도 비전이 점검되는 '전환의 중기'를 통과하지 못하면, 결국 비전의 완성에 갈 수 없다.

ㄱ) 초기

하나님의 비전은 '마지막의 완성된 모습'으로 임한다. 그래서 처음 비전을 받으면 '흥분'된다. 에너지가 있다. 불이 있다.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비전을 받은 처음은 감동이 있다. 헌신이 있다. 각오가 있다. 완성된 끝 그림을 보았기 때문이다.

ㄴ) 중기 (전환의 때)

중기는 '점검'의 때이다. 처음 주어진 비전의 그림을 향한 상태를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다. 점검의 속성은 '테스트'와 같다. 테스트는 상태의 점검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중간의 점검이 지향하는 바는 분명하다. 처음 그림이 마지막 그림과 동일한지 확인하는 것이다. 처음 본 그림을 실제로 그리며, 잘 그리고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그래야 마지막에 처음 본 그림대로 완성할 수 있다.

2. 중기 - 전환의 중요성

(1) 비전이 유실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비전을 받는다. 그러나 비전의 그림이 분명히 나타나는 사람은 소수이다. 왜 그럴까? 중간 시간에서 비전을 유실했기 때문이다. 즉,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전이 유실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ㄱ) **사울왕** : 하나님으로 온 비전이 유실된 대표적인 인물. 결국 끝이 좋지 않다 (비극적 삶)

ㄴ) **다윗왕** : 처음 받은 비전 그대로 왕이 되었다. 어떻게 가능한가? 중간 여정에 있었던 많은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중간지점을 잘 통과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갈 수 있었다.

[디모데후서 4:10]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2) 전환점을 통과한 사람이 다음 단계를 달릴 수 있다.

비전이 분명한 그림으로 나타나는 여정에는 '저항'이 있다. 저항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다.

ㄱ) **마귀로부터오는 저항** :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당연히 악한영 마귀의 방해가 있다. 당연한 것이다. 저항은 필연적이다.

ㄴ) **하나님이 주시는 저항** : 하나님이 주시는 저항은 훈련의 성격이 강하다. '연단'이라 한다.

[로마서 5:4]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앞이로다 (연단이 없는 소망은 없다)

[잠언 17:3]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와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연단하시는 하나님이다)

[말라기 3:3]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하나님은 예배를 위해 레위인을 직접 연단하셨다. - 금,은처럼 깨끗하게) 레위인은 연단된 사람들임을 명심하라.

비전은 완성의 그림이다. 온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비전을 담을 그릇을 연단하여 준비하신다. 비전을 받은 사람 가운데 반드시 연단이 있다. 훈련이 있다. 그냥 되지 않는다.

(3) 저항하지 않는 순종의 마음과 열린 마음

영적원리에 있어서 저항은 욕의 속성이다. 영의 속성은 순환이고, 받아들임이다. 흐름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순종은 행위의 영역이 아니다. 순종은 '존재'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강물 안에 나를 던지는 것이다. 흐름을 타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행전의 사건이다.

ㄱ)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핍박

[사도행전 8:1]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짐이 주님의 뜻이었다. 핍박과 고난으로 보였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흩어짐은 유대공동체가 열방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ㄴ) 베드로의 보자기 환상 / 고넬료의 집에 임한 성령님

하나님이 만드신 전환을 저항 가운데 감지하기 시작한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생각과 틀에 저항이 만들어졌지만, 그들이 열린 마음으로 흐름을 따라갔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환의 때가 중요하다. 어려움이 있는가? 그 가운데 만들어진 성령의 움직임을 보라.

(4) 전환의 때를 통과해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비전은 과정이기에 통과해야 보인다. 그러므로 이해되지 않아도 가야 한다. 움직여야 한다. 초대교회가 정체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 그리고 바울의 선교여행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의 그림이 보여진다.

핍박이 있었던 로마를 향한 바울의 여정을 보라. 풍랑의 죽을 고비를 통과해 로마에 간다. 어떻게 되는가? 로마를 통해 만들어지 문명과 길을 통해 복음은 광복행진을 하게 된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니다. 가다보면 알게 된다. 움직이라. 가보라.

(5) 지속적인 계시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 필요하다.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나아갈 수 있는 신선한 마음이 날마다 필요하다. 날마다 리뉴되어야 한다. 계시는 구하는 것이다. 구하라. 계시는 마음에 새겨지는 때이며, 모든 닫혀진 생각과 마음의 공간이 확장되는 시간이다.

날마다 구하라. 분명하지 않지만 '이곳 이구나' 라는 감이 온다. 그 곳으로 가야한다. 그 마음은 분석이 아니라, 성령이 만들어 주시는 흐름을 따르겠다는 각오의 마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